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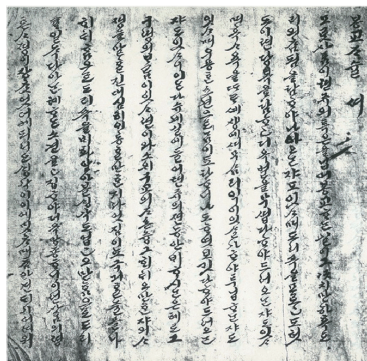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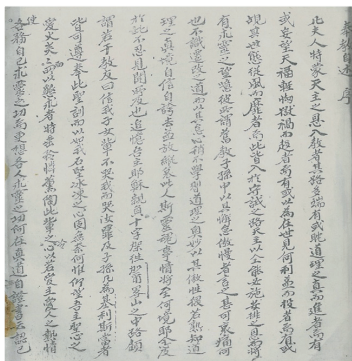
김기호 회장,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과 동일 인물 (1)

- 김기호 요한 회장 관련 자료와 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자료의 비교 -

2023년 11월 19일,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 ‘개항기 평신도 신학자 김기호’에 필자가 논평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김기호 요한 회장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나오는 ‘김형옥 요한 회장’의 이름(자(字))과 가족 관계, 행적 등이 김기호 회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형옥 회장과 김기호 회장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김기호 회장 관련 핵심 자료에는 회장의 자서전 『봉교자술(奉敎自述)』(1901), 후손들의 가전 자료 『신앙인의 유산 - 4대에 걸친 발자취』(김재환, 1979), 족보 기록 『안동김씨대동보(安東金氏大同譜)』 전10권 중 제4권(1980) 등이 있습니다. 한편, 김형옥 회장에 관한 교회측 자료로는 회장 자신의 시복재판 증언이 수록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김형옥의 이름과 행적이 언급되는 『병인지명사적』, 김형옥 회장을 복사 겸 총회장으로 삼았던 블랑 주교의 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비교와 검토를 통해 김기호 회장과 김형옥 회장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1860년대와 1870년대 후반~1890년대 초까지 수행했던 교회 활동[전교와 교육, 선교사제 수행과 보좌, 교리서 저술, 순교자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김기호(김형옥) 연구를 수정·보완하고 더 나아가 19세기 후반 한국천주교의 역사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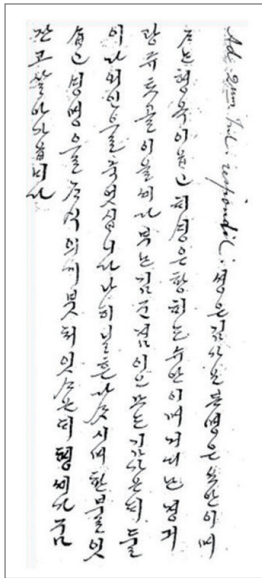
김기호 회장의 자서전인 『봉교자술』의 한문본과 한글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사진 출처] 민동규, 2010, 「조선후기 도회장(都會長) 김기호(1824~1903)의 활동과 저서 연구 - 봉교자술을 중심으로 -, 인천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74~75쪽.

필자가 본 소식지 2022년 11월호(통권 90호)에 소개한 ‘김기호 요한 회장 약전’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므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시복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형옥의 진술을 중심으로 김기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김기호와 김형옥이 동일 인물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의 또다른 이름^[字] 형옥 - 고향과 거주지(1900년 당시), 나이, 부친 이름^[字]이 같다



제2 질문에 대한 답변 : 성은 김가요
본명은 요한이며 자(字)는 형옥이옵고, 태생은 황해도 수안이며 거주지는 경기 광주 토골이올시다. 부[친]는 김군겸이요, 모[친]는 김가온데 둘이 다 외인(外人, 비신자)으로 죽었습니다. 나이 일흔다섯이며, 환부(鰥夫, 홀아비)로 있삽고 생명(生命, 생계 유지)으로 자식에게 붙여 있사운데 형세가 굵지 않고 살아가옵니다.

김형옥 요한의 시복재판 증언(제2 질문 신상명세) 원본과 현대어 판독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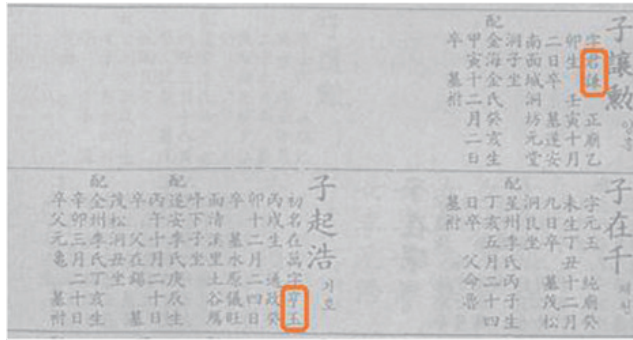
김형옥 요한은 1900년 9월 19일 명동성당 지하소성당에서 열린 시복재판 127회차에 출석하여 병인 순교자들에 대해 자신이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증인의 이름, 나이, 고향, 거주지, 가족 관계 등의 신상명세를 묻는 제2 질문에 김형옥은 위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즉, 이름^[字]은 형옥, 황해도 수안 태생, 거주지는 광주 토골, 부모는 김군겸과 김씨, 한국식 나이로 역산하면 출생 연도는 1826년이며, 1900년 당시 부인은 죽고 자식과 같이 산다는 내용입니다.

김기호가 저술한 『봉교자술』에는 자신의 이름, 나이, 고향, 부모 등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세례명인 요한(若翰)만 언급됨] 부인 이 바울라가 먼저 선종했으며, 1891년경 자식을 따라 광주 토구리 집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광주 토구리는 현재의 하우현[의왕시 청계동]을 가리킵니다.

후손들의 가전인 『신양인의 유산』에는 황해도 수안군 남면 무송동(茂松洞)에 대대로 살았으며 김기호가 1824년생이라고 나옵니다.

『안동김씨대동보』에 의하면, 구(舊) 안동김씨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 집안으로 김기호의 부친은 양훈(讓勳, 1795~1842), 모친은 김해김씨(1803~1854)이며, 김기호의 생몰연대는 1826년에서 1903년입니다. 김기호의 묘가 수원 의왕면 청계리 토곡(土谷)에 있다고 나오는데 이는 선종할 때까지 살았던 거주지를 의미하며, ‘토곡’은 위의 ‘토구리’와 같은 지명으로 보입니다. 부인은 두 명인데 둘째 부인 전주이씨(1827~1891)가 함께 신양생활을 하다가 먼저 선종한 ‘이 바울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런데 족보에는 김기호의 자(字)가 형옥(亨玉)으로, 부친 김양훈의 자(字)가 군겸(君謙)으로 나옵니다.



김기호와 그 부모 김양훈·김해김씨 - 『안동김씨대동보』 제4권(1980), 676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형옥과 김기호 자료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자(字)가 ‘형옥’으로 일치하고, 황해도 수안에서 태어나 마지막에는 토구리[土岫]에 거주하다가 선종했으며, 출생 연도에서 가전 전승[1824년]과는 차이가 있지만 김형옥의 진술과 족보 기록은 1826년으로 같습니다. 부친의 이름[字]이 ‘군겸’으로 진술과 족보가 일치합니다. 모친의 성씨이라든가 부인의 성씨, 가족 관계 등도 자료 사이에 모순되는 점이 없습니다.

베르뇌 주교가 황해도 공소 방문 중 곤욕을 치른 사건에 대한 기록, 진술이 같다

『봉교자술』에는 ‘장[베르뇌] 주교를 모시고 전교하다가 사군난(私窘難, 비공식적인 박해) 겪은 일을 추억하여 특별하신 주은을 감격한 마음으로 회과자책(悔過自責)함이라.’는 별도의 장이 있습니다.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김기호 회장이 베르뇌 주교를 수행해서 사목 방문을 할 때 황해도 신계 지역에서 불량배들을 만나 온갖 모욕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주교가 붙잡혀 가거나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일 없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위태로운 순간들을 목격했던 김기호는 자세한 내용을 『봉교자술』에 기록했습니다.

상세하지는 않지만, 위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김형옥의 진술에서도 확인됩니다. 순교자의 행적을 묻는 제8 질문에서 김형옥은 갑자년(1864) 8월(음력)에 자신이 베르뇌 주교를 모시고 사목 방문을 하는 중에 신계 땅 어느 장터에서 악당들을 만나 하루종일 욕을 당하다가 결국 무사히 서울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르뇌 주교의 서한이나 다른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1863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김형옥의 진술은 1년의 오차가 있지만 기억의 착오로 보입니다. 아무튼 김기호의 기록과 김형옥의 진술이 사실상 일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김기호와 김형옥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상해 삼덕당(三德堂)에서 베르뇌 주교 등 조선 순교자의 화상을 본 기억도 일치하다

김형옥의 시복재판 진술과 『봉교자술』의 김기호 회상에서 일치하는 부분은 또 한가지 있습니다.

1883년 블랑 주교가 주교 성성식을 위해 나가사키에 갔다가 상해를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는데 이때 김기호 회장이 주교를 수행했고,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봉교자술』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해의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인 삼덕당(三德堂)에 들어가 내부 벽 위에 걸어놓은 조선에서 순교한 주교와 신부들의 그림(像本)을 보고 크게 감격하여 ‘삼덕당기’(三德堂記)를 따로 짓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시복재판에서 김형옥은 순교한 시복대상자에 대한 공경 여부를 묻는 제25 질문에 답하면서 베르뇌 주교와 다른 순교자들의 그림(像本)을 상해 삼덕당에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김기호와 김형옥이 동일 인물이며,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던 삼덕당에 대해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시복재판 중에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삼덕당 사진 (출처 <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0041400453>)

… (다음 호에 계속) …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3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